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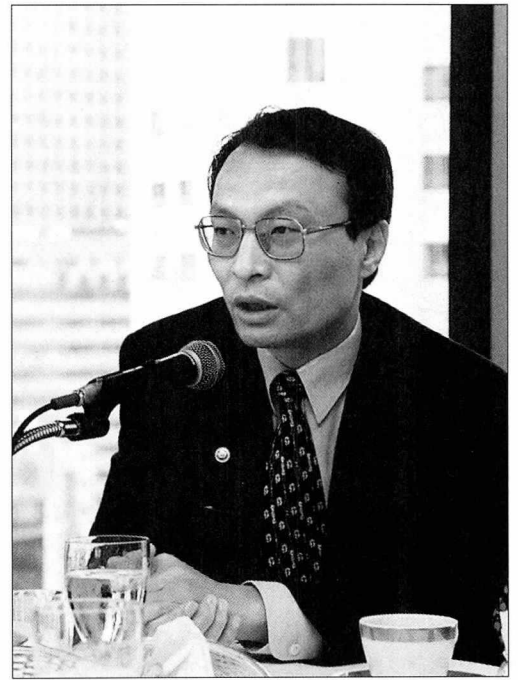
“책 읽는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 이루겠다”

서울출판인포럼 조찬모임, 이해찬 교육부 장관 초청

서울출판인포럼은 지난 10일 서울 조선히텔에서 가진 조찬모임에 이해찬 교육부 장관을 초청, '교육과 출판'을 둘러싼 광범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장관은 교육부가 초·중·고 권장도서목록을 올해 안에 선정할 수 있도록 30명으로 이뤄진 '새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가칭)'를 이달 25일까지 발족시키고, 이를 강력히 실천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의 '새교육공동체 시민모임'의 정착에 간접지원하겠다고, 독서가 학교 교과과정의 한 형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의 입장에서 바라본 이장관의 독서와 출판에 대한 시각과 함께 출판인과는 대화 내용을 정리해 신는다.



지난 10일 서울 조선히텔에서 가진 조찬모임.



이해찬 교육부 장관.

이해찬 장관 — 교육부를 맡은 지 얼마 안 돼 “책 읽는 사람이 대학에 들어가는 데 유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현재의 입시구조로는 교육내용이 파행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그 결과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능력이 낮을 수밖에 없어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해나가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이다.

지금은 산업사회 후기로서 대량생산이 경쟁력을 가졌던 시대는 지나고, 새로운 사회 흐름으로서 정보지식사회가 등장하고 있다. 이제까지 생산활동이 자본·노동·토지의 3대요소로 이뤄졌다면, 이제 여기에 ‘지식’이 대단히 중요한 생산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지식의 생산능력을 어느 나라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전세계의 관심이 모아지며, 국민의 지적 능력을 길러내는 것을 주요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국가 전략목표로서 교육의 중요성이 있다.

전세계에서 하루 2만편의 논문이 생산되는 동시에 인터넷을 통해 1, 2시간 내에 받아볼 수 있는 시대다. 그만큼 일반인의 생활 속에 지식정보가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지식을 모두 알 필요는 없으며, 그 많은 정보 가운데 자신이 속한 분야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지식을 선별해내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를 자기주도적으로 포착하는 능력이 교육의 기능이며 그것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독서’다.

정답 위주의 테스트에 길들여진 단순한 사고력으로는 새로운 미래사회에 대응해나갈 수 없다. 결국 새로운 교육에서 독서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며 강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 독서실태는 미흡하다. 학교도서관은 빈약하며 입시와 관련된 외에 독서교육은 거의 없다. 학교에 꽂혀 있는 책 내용도 빈약하다. 일반인 역시 공공도서관을 거의 이용하지 않으며 시험공부방의 공간에 그치고 있다. 학교와 사회에서 일상적인 독서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학교 독서진흥을 할 것인가. 첫째, 무슨 책을 읽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교육부 내 13인으로 구성된 도서선정위원회를 30명 정도로 확대, 초·중·고 학생이 읽어야 할 책을 공정하게 심사, 선정해서 올해 안에 공시할 계획이다. 지금 입법과정중이며 이달 25일에 최종 발족하게 된다. 질이 떨어지는 책들이 학교 도서관을 꽂 채우고 있을 때 독서교육은 역효과가 날 것이다. 목록을 선정하고 도서의 질을 점검해 학교도서관에 좋은 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비해나갈 것이다.

둘째, 어떻게 읽게 할까의 문제다. 독서가 학교 교과과정의 한 형태로 자리잡을 수 있어야 한다. 독서가 교양형태로 머물기보다 적극적으로 책을 읽고 사고할 수 있도록 제도화 준비 단계다. 꼭 인쇄매체 형식의 책을 통한 독서만이 유일한 지식은 아니라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CD롬, 전자도서 등 현재 교과서까지 전자도서로 만드는 모형을 준비

중이다. 또한 대학 입학 때 논술 반영 비율을 높이도록 유도하겠다.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점차 수능평가 의존도는 낮아지고 논술형태 시험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다. 독서가 학교 교육과정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서를 선정하고 교과에 반영될 수 있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며 교육에 ‘독서’는 거듭 강조돼야 할 부분이다.

출판인과의 대화

윤형두(범우사 대표) — 좋은 책을 갖추는 환경도 중요한데, 실제 독서교육을 담당할 사서의 역할도 필요하다. 이를 반영할 방법은 없겠는가.

이해찬 장관 — 사서의 역할은 물론 중요하다. 현재 각 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하려면 4천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장기적으로 학교 경제여건에 맞춰 사서직 교사를 둘 수 있도록 방향을 잡겠다. **이기웅(열화당 대표)** — 새교육공동체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에 출판전문가도 참여할 수 없겠는가. 또 ‘교육과 출판’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갖는 게 어떤가.

이해찬 장관 — ‘새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는 대통령자문기관으로서 역할에 분명히 실천적인 한계가 있을 것이다. 각 시·군·구 단위 지역사회에 학교·지역사회단체·학부모가 참여하는 ‘새교육공동체 시민모임’의 실천단위를 만드는 데 법적 여건 등 간접지원을 할 것이다. 그 실천단위에 출판

인들이 참여해줬으면 좋겠다. ‘독서와 교육’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겠다.

이문철(영진출판사 대표) — 컴퓨터 서적은 1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할 만큼 컴퓨터 업계의 발전 속도는 빠르다. 현재 학교의 컴퓨터 교과서는 그런 점에서 문제가 많다. 타자 연습이나 도스 사용 등 뒤떨어진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인데, 교과 내용은 2002년에 가서야 개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해찬 장관 — 교과과정은 심의 집필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사실이다. 컴퓨터 교재의 문제는 그런 점에서 잘 검토해보겠다. 그러나 교과서 자체는 교안의 하나일 뿐이며 교사 스스로 교안을 만들어나가는 유연한 교육방법이 필요하다.

이와 별개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과서를 둘러싸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리활동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을 고객으로, 학교를 시장으로 보지 말아달라. 도서선정을 둘러싸고 납품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양성을 추구하려고 2종교과서 제도를 만들었는데, 업체들 담합으로 오히려 교과서 내용만 부실해진 결과를 낳았다. 출판업계가 그만큼 자율적 능력이 없다는 얘기다. 업계 스스로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앞으로는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잘못된 상행위가 끼어드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 정리·김지원 기자